

〈효의정충예행록(孝義貞忠禮行錄)〉의 인물전고 활용 양상 연구*

강 문 증**

차 례

- | | |
|-------------------|--------------|
| 1. 서론 | 4. 문헌 내용의 활용 |
| 2. 인물전고의 양상과 특징 | 5. 결론 |
| 3. 역사적 인물과 사건의 활용 | |

국문초록

〈효의정충예행록〉을 분석하여 총 237건의 전고를 표제어, 활용 양상, 위치의 항목대로 정리하였다. 그 결과 첫째, 윤리적·도덕적 전범이 되는 인물 관련 전고의 출현 빈도수가 가장 많았음을 확인하였다. 둘째, 효자·충신·부덕(婦德) 관련 인물전고가 가장 많이 등장하는데, 이 전고들이 효자 혹은 효의 실현으로 수렴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셋째, 한 인물이 다양한 양상의 전고로 활용되었는데 맹자·유방이 다섯 가지 양상으로 활용되었고, 공자가 여섯 가지 활용양상을 보여 가장 다양한 활용도를 보였다.

* 이 논문은 2019학년도 제주대학교 교원성과지원사업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제주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조교수.

역사적 실체인 만귀비 관련 전고들이 여성 악인 형상화에 활용되었고, 당태종과 울지공 관련 전고는 등장인물간 갈등 해결의 양상과 의미를 보여주기도 하였다. 특히 『열녀전』에 실려 있는 두 편의 자료에 등장하는 목강의 전고를 결합하여 가장 전범이 되는 여성의 캐릭터의 이미지를 만들었고, <홍불기>라는 문학작품으로 만들어진 전고를 활용하여 등장인물들의 관계와 관계의 정리 양상을 그려내기도 하였다.

이러한 인물전고 활용 양상을 통하여 ‘효의(孝義)·정충(貞忠)·예행(禮行)을 내세우면서도 결국은 모든 요소들이 효의 실행으로 귀결되는 주제의를 다시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가장 전범이 되는 인물들 조차도 다양하고 입체적으로 활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열녀전』과 <홍불기>의 내용과 전고를 그대로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창의적인 결합을 통해 <효의정충예행록> 만의 특징을 만들어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주제어 : 효의정충예행록, 인물전고, 열녀전, 홍불기, 목강

1. 서론

본고는 <효의정충예행록(孝義貞忠禮行錄)>에 등장하는 인물전고를 전수조사하여 정리하고 각 종 역사적 사건 및 문헌들에 대한 활용 양상과 의미를 밝혀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효의정충예행록>¹⁾은 ‘의(義)’, ‘충(忠)’, ‘정절(貞節)’ 등이 결합하여 ‘효(孝)’의 실행으로 집약되는 내용을 가진 국문 대장편소설이다. 이 작품은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대장편소설의 특징과는 다른 많은 변별성을 갖고 있다. 특히 창작방법은 기존에 알려져 있던 연작(連作)이나 파생작과는 전혀 다른 전후작의 결합

1) 이하 <효의>로 표기함.

방식을 보여주고 있으며, 여성영웅소설, 몽유록 등과 같은 고전소설의 다양한 양식을 수용하고 변개하는 모습도 보여준다. 이러한 창작방법과 함께 다양한 중국의 문헌들을 수용하고 있다. 상투화된 표현과 상식 수준의 인물전고 및 사자성어가 인용되는 수준을 넘어 구체적인 역사와 문헌 그리고 몇몇 문학작품과 관련을 맺으며 수용되었다.²⁾

이 작품에 대한 연구는 최근까지 목록 정리를 비롯한 모리스 꾸랑의 서지학적 연구³⁾와 김기동에 의한 기초적인 줄거리 제시 등의 해제 연구⁴⁾를 제외하고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이 작품에 대한 연구의 선편은 차충환에 의해 이루어졌다. 우선 이본 비교를 통하여 29권 29책을 선본으로 확정하였고, 서사의 중심축과 표면적 전개를 비롯하여 모자갈등과 형제간 우애를 검토한 후 부부갈등의 양상과 의미를 가문의식의 확장으로 제시하였다.⁵⁾ 그런데 <효의>에 대한 종합적 연구는 강문중에 의해 이루어졌다. 다양한 이본의 조사, 작품명에 대한 의미 정리, 작품 내에 언급된 정보들을 활용한 전작과 후작의 관계양상 고찰, 가문 구성원의 수직적 관계에 기반한 모자갈등과 웅서갈등, 수평관계에 기반한 부부갈등의 양상과 의미 제시, 개성적 여성인물들을 포함하여 주요 인물의 특징과 서사적 의미 고찰, 수절하는 남성 캐릭터 등의 특징을 검토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소설사적 의미를 정리하였다.⁶⁾ 이러한 연구를 통하여 <효의>의 총체적인 모습과 대장편소설의 특징은 어느 정도 규명되었다. 그러나 아직도 다소 아쉬운 부분이 남아 있다. 이 작품은 풍부한 중국 인물전고와 역사적 사건 그리고 각 종 문헌 등이 다양하게 활용

2) 강문중, 『<孝義貞忠禮行錄> 研究』,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0.

3) 모리스 꾸랑 원저, 李姬載 翻譯, 『韓國書誌』, 一潮閣, 1994, 300쪽.

4) 김기동, 『한국고전소설연구』, 교학사, 1981, 587-589쪽.

5) 차충환, 『<효의정충예행록> 연구』, 『古小說研究』제22집, 한국고소설학회, 2006, 239-276쪽.

6) 강문중, 『<孝義貞忠禮行錄> 研究』,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0.

되고 있는데⁷⁾, 이에 대한 연구가 미진하다. 이러한 특징들은 서사의 중요한 지점에서 등장인물의 특징을 비롯하여 주제의식을 드러내기도 한다. 그리고 단순 전고의 수준을 넘어 문학작품에 등장하는 주인공의 특징 등의 활용이 나타나기도 한다.

<효의> 전반부의 시대적 배경이 성화 연간이며, 당대를 살았던 문계적 인물인 만귀비가 악인으로 등장하기도 하고, 당태종과 울지경덕의 관계를 활용하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논어』, 『시경』, 『열녀전』, 『삼언』에 들어 있는 <왕교란백년장한(王嬌鸞百年長恨)>, 『전등여화』, 『목란사』, 『삼국지연의』, 『규염객전』 등을 비롯하여 소식의 <적벽부>까지 다양한 문헌과 문학작품을 활용하고 있다. 특히 각 종 인물전고를 활용하여 서사적 의미를 더하는데 무려 237 건이 등장한다. 필자는 <효의>에 등장하는 인물전고를 전수조사하여 현황을 정리한 후 서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분을 검토할 것이다. 이후 중국의 역사와 각 종 문헌 및 문학작품들의 활용 양상을 고찰할 것이다.⁸⁾

이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효의>를 중심으로 한국 고전소설의

7) <효의>의 연구와는 상관 없이 한글 대장편소설의 전고 수용 양상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서경희, 『소악란 고사의 국내 수용 양상과 <소악란적금회문록>의 이본 전승 연구』, 『온지논총』 20, 온지학회, 2008, 109-150쪽”에서는 고사의 수용과 이본 형성과정의 관련 양상을 검토하였다. 독서의 역학작용과 전고 활용 양상을 다룬 “김문희, 『장편가문소설의 전고와 독서 역학적 연구』, 『한국고전연구』 21, 한국고전연구학회, 2010, 201-203쪽.”, 전고를 통한 사건 형성 과정을 검토한 “최수현, 『<유씨삼대록>의 전고 활용 특징과 그 기능』, 『고소설연구』 38, 한국고소설학회, 2014, 261-295쪽”, 대장편 소설 12편을 대상으로 전고 활용 양상을 축출한 후 이를 범주화 했던 “최수현, 『국문장편소설의 전고(典故) 운용 전략과 향유층의 독서문화 연구』, 『한국고전연구』 36, 한국고전연구학회, 2017, 147-183쪽” 등이 대표적이다.

8) 중국의 인물과 역사 등은 모두 문헌에 등장하는 내용들을 참고하였다. 그러나 중국의 역사적 실체와 문헌을 구분하였는데, 3장에서는 주로 역사적 인물과 관련된 사건 및 그와 관련된 기록들의 활용 양상을 중심으로 검토하였고, ‘열녀전(列女傳)’과 <홍불기>와 같이 문학작품으로 분류되는 내용의 활용 양상은 제4장에서 ‘문헌 내용의 활용’으로 구분하여 서술하였다.

전고 활용 양상과 그와 관련된 중국의 역사와 문헌의 활용 양상을 밝히는데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⁹⁾

2. 인물전고의 양상과 특징

<효의>는 모자갈등, 용서갈등, 부부갈등 등을 통해 효의 극대화와 여성으로서 지켜야 할 윤리적 규범을 강조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진 대장편 소설이다. 이러한 다양한 갈등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등장인물의 성격이나 유형 및 주제의식을 보여주기 위하여 인물전고들이 활용되었다. 이러한 인물전고의 양상과 그 특징을 전수조사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 기준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허구적 인물의 혈연관계에 있는 역사적 인물은 전고로 선정하지 않았다.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조강 석시는 송도 석수신의 후예라 (01_2b)”인데, ‘석씨’는 등장인물로서 허구적 인물이고, ‘석수신’은 역사적 인물이다. 이 경우 ‘석수신’을 인물전고로 보지 않았다. 특히 경서에서 ‘공자(맹자, 안자 등등) 왈’ 등의 직접인용 사례에서 등장하는 인물들 역시 전고로 선정하지 않았다. 따라서 문맥상 앞뒤에 캐릭터를 규정하는 각 종 설명과 수식어가 함께 결합되는 경우를 중심으로 선정하였다.

둘째, <효의>의 인물전고 양상을 정리하기 위하여 이 작품의 이본 중에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소장 29권 29책을 대상으로 하였다. 57권 56책인 경우 29책본과 모든 면에서 대동소이한 특징을 갖고 있으나, 29책

9) 전수조사를 거친 ‘활용 양상’을 귀납하여 ‘활용의 유형’을 별도로 규정하여 전고 활용 유형의 분류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이러한 논의는 지면의 한계가 있으며, 학계의 심도 있는 논의 과정을 거쳐야 할 필요가 있고, 다양한 유형의 작품 속에 나타난 전고 활용 양상을 다각도로 검토한 후 이루어져야 한다. 본고는 이러한 중장기적인 연구를 지향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한 가지 사례를 <효의>를 통해 검토하게 될 것이다.

이 낙질이므로 인물전고의 총체적 모습을 정리하는데 다소 한계가 있다. 따라서 현존하는 완질 형태의 유일본인 29권 29책본을 선택하였다.¹⁰⁾

셋째, ‘인명’이라는 용어를 대신하여 ‘표제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이는 일반적으로 출현하는 인물전고의 명칭이 이름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많다. 이 작품에서 역시 공자인 경우 ‘부즈·공부즈·공밍·중니·공중니’ 등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임금을 나타내는 경우는 이세민을 대신하여 ‘당티중’, 이윤기를 대신해서 ‘당현중’ 등이 가장 일반적으로 등장한다. 뿐만 아니라 요임금은 ‘요천즈·요순’ 등이 주로 사용되고, 순임금인 경우는 ‘순황제·요순·대순’ 등이 주로 사용된다. 특히 한 용어에 몇 명을 포함하는 경우 역시 자주 등장하는데 ‘회중·회숙·화중·화숙’을 대신하여 ‘사악(四岳)’으로 표기되고, ‘동원공·기리게·하황공·녹리선생’을 대신 해서 ‘상산사호(商山四皓)’로 표기된다. 뿐만 아니라 이름을 대신하여 자호(字號)로 불리는 경우도 허다하다. 따라서 이름을 대신하여 ‘표제어’를 사용하였다.

넷째, 양상을 표현하는 경우 가급적이면 하나의 어휘로 표기하였지만 한 개의 어휘로 다소 한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충신(버림받음)’, ‘냉정한 정치가’, ‘불로장생 욕망’, ‘버림받은 여인’ 등으로 표기하였다.

다섯째, 위치는 가급적 모든 언급을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고, 앞에는 권차(卷次)를 표시하였고, 고서의 특징상 한 장을 접어서 제작하는 것이므로 앞부분을 영문 소문자 ‘a’ 뒷부분을 ‘b’로 표시하였다. 따라서 각 권(혹은 책)의 1쪽은 ‘1a’로 표시하였다. 예를 들면 1권 1쪽을 ‘01_1a’로 표시하고 1권 3쪽을 ‘01_2a’ 표시하였다.

기타 연구자의 시각에 의존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음을 고백한다.¹¹⁾

10) <효의>의 이본 현황과 특징에 대해서는 강문중 앞의 논문 7-26쪽 참고.

11) 우선 <효의> 29책본인 경우 현재 현대 활자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원전을 개인적으로 단순 입력하면서 전고를 선정하였다. 꼼꼼하게 전수조사하였지만, 혹 놓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며 이는 계속되는 후속 연구를 통해 보완해 갈 것이다.

이러한 기준으로 <효의>의 인물전고의 활용 양상에 대한 현황을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

[<효의정충예행록> 인물전고 양상]

구분	표제어	양 상	위 치
1	가운하	美女	14_22a, 14_44a, 17_20a
2	가의(賈誼)	忠臣(버림받음)	16_54b, 19_46a, 20_42b
		人才	20_24b, 22_8a, 27_25b
3	강상(姜尙)	隱遁志士	02_61a, 06_58b, 20_28a, 22_27b, 27_61b
		才士	24_44b
		忠臣才士	08_45a, 10_2b, 22_31a, 23_19a
4	강충(江忠)	誣告	01_41b,
5	강항령(強項令)	忠臣	07_4a
6	강후(姜后)	內助	1_2a,
7	개자추(介子推)	忠臣	15_17b, 23_25b
8	견우(牽牛)	賢夫	17_77a,
		節夫	26_25b
		逢別	26_43a
9	경강(敬姜)	婦德	07_16b, 21_24a, 21_35b
10	계력(季歷)	節義	16_59b
11	고공단보(古公亶父)	節義	16_59b
12	고력사(高力士)	惡人	13_58b,
13	고수(瞽叟)	愚夫	01_65b, 05_6b, 05_7a, 05_10a, 08_34a, 08_46a, 09_19b, 09_32b, 14_61a
14	고요(皐陶)	賢臣	17_18a
		才士	22_7a
15	공강(共姜)	烈女(절개)	16_57b, 21_48b, 24_48b
16	공자	君子	01_12b~13a, 02_17b, 02_24b, 04_3a, 04_37a, 15_17b, 15_17b, 16_8b, 16_36a, 17_17a, 17_95a, 18_39b, 18_51b, 19_8b, 21_8a, 22_7a, 22_12b, 24_4a, 24_47a, 24_51a, 24_54a, 25_12b, 25_15b, 27_34a, 27_45b, 27_50a
		處士	01_13a~13b,
		道學者	15_11b, 22_36a
		냉정한 정치가	24_13b
		스승	16_60b, 17_45a, 27_12b
		賢臣	21_32b
17	공자하(公子瑕)	賢臣	26_43b
18	곽가(郭嘉)	才士	09_32a

44 한국문학논총 제85집

19	곽광(霍光)	忠臣	04_7b, 14_35b, 16_18a
20	곽자의(郭子儀)	富貴榮華	13_46a, 20_28b, 24_55b, 24_59a, 29_2a
21	관우	英雄(名將)	01_76a, 27_36b
		義兄弟	16_36b
		냉정한 정치가	19_51a, 24_13a, 28_3a
22	관중(管仲)	忠臣	02_4b, 10_2b
		名宰相	14_44a, 16_9a
		知己之友	02_48b, 11_3b, 16_13b, 19_7a, 20_56b, 21_16a, 21_58b, 24_43a, 25_44a
		智略家	25_8b,
23	곽국부인(虢國夫人)	美女	13_60a
		비운의 여인	18_79b
24	구의부인(鉤弋夫人)	비운의 여인	19_51a
25	구천(句踐)	臥薪嘗膽	12_47b, 13_51a, 22_35a
26	구천현녀(九天玄女)	仙女	17_51a
27	굴원(屈原)	忠臣(버림받음)	16_54b, 46a, 22_34a, 22_34b, 24_33a
28	급암(汲黯)	忠諫	20_31b, 22_8a
29	기신(紀信)	忠臣	23_25b
30	나중(米商)	隱遁者	17_86a
31	난지(米商)	여성 문인	27_16a
32	노담(老聃)	長壽	01_24b, 27_36b
		虛誕	26_17b
33	노래자(老萊子)	孝子	16_41a, 18_68a, 24_45a, 26_25b, 27_4a, 28_60b
34	노숙(魯肅)	才士	27_20a
35	노중연(魯仲連)	剛直	26_43b
36	누사덕(樓師德)	雅量	24_55b, 26_6a, 27_26a
37	달기(妲己)	弱女	19_48b
38	당고종(唐高宗)	賢君	11_54b
39	당태종(唐太宗)	創業之主	02_55a, 07_18a, 28_41b
		賢君	05_29b, 05_29b, 09_60a, 23_37a
40	당현종(唐玄宗)	亂國之主	13_21b
41	대교(大喬)	美女	04_41b
42	도연명(陶淵明)	隱遁者	17_93b, 17_94a
43	도척(盜跖)	大盜	09_7a, 09_34b, 09_40a
44	독고황후(獨孤皇后)	惡女	09_54b, 20_22a
45	동방삭(東方朔)	賢臣	17_7a
46	동중서(董仲舒)	人才	20_24b
47	동탁(董卓)	篡逆者	07_02b, 07_03b
48	두목(杜牧)	美男	10_28a, 16_45b, 19_58a, 23_37a
49	두보(杜甫)	文人(詩人)	16_44a, 16_70b, 18_53b
		風流男	19_7b, 23_37a

50	등우(鄧禹)	開國功臣	22_23a
51	마등(馬鄧)	婦德	01_6a~6b, 03_26a, 28_64b
		賢哲	16_5b
52	마원(馬援)	忠臣	21_7b
53	마초(馬超)	美男	26_39a
54	맹광(孟光)	醜女	20_43a
		婦德	03_19a, 14_25a, 20_45a, 27_53b,
55	맹모(孟母)	賢母	13_37b, 28_60a
56	맹상군(孟嘗君)	言行不一致	13_19b
57	맹자(孟子)	君子	01_63a, 02_4b, 02_47b, 13_37b, 14_36a, 15_17b, 16_8b, 16_55b, 17_93b, 17_95a, 19_36a, 21_8a, 22_12b, 22_30b, 24_47a, 24_54a, 25_12b, 26_3b, 28_11a
		大儒	01_12b~13a,
		處士	01_13a~13b,
		嚴夫	14_25a
		道學者	15_11b, 22_36a
58	맹자여(孟子餘)	賢臣	17_29b
59	목강(穆姜)	慈母	01_18a, 01_25a, 01_42a, 01_54a, 01_64a, 01_65b, 02_24a, 03_30a, 03_40b, 04_34b, 05_25b, 09_21b, 09_27b, 09_48a, 10_2b, 18_31b
60	목난(木蘭)	여성 영웅	10_46b, 16_31b, 16_39a
		孝烈	10_46b, 23_15b
61	목왕(穆王)	術士	08_40a
62	무조(武曩)	淫女	03_16b,
		垂簾聽政	08_22a
		惡女	20_20a
63	무왕(武王)	聖君	04_5b, 06_58b
		孝子	17_65a
64	문왕(文王)	聖君	02_58b, 02_61a, 04_37a, 06_43a, 06_58b, 08_45a, 10_2b, 12_28a, 13_37b, 13_51b, 14_33b, 14_35b, 14_59a, 14_61a, 15_2b, 17_65a, 20_28a, 22_34a, 24_44b, 25_55b
		君子	16_28a
		孝子	21_30b
		窈窕淑女	26_4a, 26_4a
65	문천상(文天祥)	忠臣	22_5a, 27_11a
		人才	20_24b
66	민자건	孝子	01_1b, 03_21a, 04_49a, 05_7b, 08_44b, 09_21b
67	반비(班妃)	美女	03_19a, 24_45b
68	반악(潘岳)	文人	17_56b
		美男	23_37a

46 한국문학논총 제85집

69	반첩여(班婕妤)	美女	08_5a, 26_26b
70	반소(班昭)	고고학	24_48b
71	백이(伯夷)	節義 隱遁	01_56a~56b, 05_29a, 09_13b,
72	백희(伯姬)	婦德	21_35b, 21_48b, 21_24a
		節概	24_48b
73	번희(樊姬)	美女	15_3b, 22_2b
		婦德	17_42a, 24_42a
74	번쾌(樊噲)	勇將	02_56b, 28_17b
		飲酒	13_59b
75	범려(範蠡)	智略家	24_6a
76	범증(范增)	智略家	25_42b
77	병길(丙吉)	忠臣	10_28a
		道德君子	26_43b
78	부차(夫差)	昏君	22_35a
79	부열(傅說)	才士	24_44b
80	비간(比干)	忠臣 忠諫	04_23a, 07_4a, 27_34a
81	사광(師曠)	才士	09_27a, 10_2b, 19_52b
82	사마상여(司馬相如)	文人	14_53a, 17_15b, 20_17a
83	사마양저(司馬穰苴)	兵法家	22_7b, 25_48b
84	사마의(司馬懿)	智略家	20_22a
85	사마천(司馬遷)	文章家	22_30b, 25_8b
86	사악(四岳)	才士	22_7a
87	상모(象母)	繼母	01_18a, 01_26b~27a, 01_35a, 01_65b, 08_34a
88	상산사호(商山四皓)	隱遁 賢人	18_50b, 22_36b,
89	상주(商紂)	暴君	04_23a, 24_54a
90	서시(西施)	美女	06_32b, 14_43b, 19_24a, 20_53b, 24_6a, 24_33b, 24_45b, 25_18a, 26_33a
		천박함	27_26a
91	석가(釋迦)	無倫者	22_37a, 26_16b
		虛誕	23_20b, 26_17b
		女色警戒	26_4a
92	설(契)	賢臣	16_66b, 17_17a, 17_18a
93	섭정(聶政)	劍客	01_48a
94	소강절(邵康節)	賢臣	29_22a
95	소교(小喬)	美女	04_41b
96	소무(蘇武)	忠臣	18_18a, 18_18b
97	소부(巢父)	節義 隱遁	16_58b, 27_34b
98	소식(蘇軾)	文人	10_41a, 15_26a, 17_54a
		人才	20_24b
99	소혜(蘇蕙)	여성 문인	27_16a
100	소정묘(少正卯)	亂臣	24_13a

101	소진(蘇秦)	遊說客	01_65a, 16_54a, 22_27b
		錦衣還鄉	16_24b
102	소하(蕭何)	忠臣	22_4b
		開國功臣	22_23a, 28_58a
103	소호(小昊)	神枝	17_18a, 17_27a
104	손권(孫權)	非禮	25_44a
105	손자(孫子)	兵法家	22_7b, 25_48b
106	송고조(宋太祖)	創業之主	28_42a
107	송옥(宋玉)	맑음	01_6b~7a
		방당함	17_12b, 17_15a
108	송태조(宋太祖)	創業之主	20_22a
109	송홍(宋弘)	節夫	14_40a, 17_9a, 17_87b, 20_65a, 24_46a, 25_18b
110	숙제(叔齊)	節義 隱遁	01_56a~56b, 05_29a, 09_13b
111	순임금	賢君	02_39b, 04_5b, 06_50a, 08_31a, 08_43a, 16_66b, 17_54a, 17_77b, 18_1a, 22_7a, 22_7b, 22_34b, 22_35a, 24_43b, 26_8b, 27_35a
		孝子	01_16b, 01_33b, 01_35a, 01_63a, 01_74a, 03_11b, 03_21a, 04_6b, 05_7b, 05_23a, 08_44b, 08_46a, 09_19b, 09_32b, 14_61a, 16_58b, 17_17a, 17_62b, 19_36a, 19_76b, 22_7a, 25_8b, 28_11a
		연주가	10_42a
		賢夫	14_13b
112	신후경(미상)	輕薄	17_15b
113	악비(岳飛)	忠臣	22_5a, 25_52b, 27_11a
		人才	20_24b
114	악의(樂毅)	忠臣	10_2b,
		名將	14_35b, 16_9a
115	안자(晏子)	훌륭한 제자	01_12b~13a, 16_60b
116	안자(顔子)	君子	01_63a, 02_4b, 14_36a, 16_36a, 17_17a, 21_35b, 22_7a, 22_12b, 24_54b, 26_44a
		短命	01_13a~13b, 04_46b, 16_36a
		훌륭한 제자	02_14b, 16_36a
		安貧樂道	16_36a, 19_8b, 27_21a
117	양옥환(楊玉環)	淫女	03_16b
		美女	06_37a, 13_21a, 13_21b, 13_58b, 22_2b, 24_45b
		천박함	27_26a
118	양여옥(미상)	여성 문인	19_4b
119	양왕(襄王)	昏君	09_39b
120	양유기(養由基)	名射手	25_8b
121	양홍(梁鴻)	美男	20_45a
		才士	20_45a

122	엄광(嚴光)	隱遁志士	06_37b
		才士	11_10a, 17_85b,
		富貴	22_36b, 27_34b
123	여동빈(呂洞賓)	才士	17_73b, 18_44a
124	여태자(여태자)	誣告	08_26b
125	여후(呂后)	惡女	01_26b~27a, 01_35a, 01_63a, 01_73a, 09_54b, 13_24a, 14_55b, 18_22a, 25_35b, 28_47a
		垂簾聽政	08_22a
126	여희(驪姬)	妖婦	20_20a
127	오기(吳起)	兵法家	22_7b
128	오원(伍員)	復讎	06_16b
		忠臣	21_6a, 21_7b
129	올관(兀官)	失節	40_14a
130	옹치(雍齒)	背信者	24_19b
131	완적(阮籍)	방탕한 문인	17_93b
132	왕계(王季)	賢夫	21_30b
133	왕교랑	美男	14_22a, 14_44a, 17_20a, 18_66a, 18_78a
134	왕망(王莽)	篡逆者	02_35b, 07_02b
		奸臣	25_25b, 28_16a
135	왕발(王勃)	文人	02_17b, 21_40a
136	왕상(王祥)	孝子	01_24b~25a
137	왕석(미상)	不肖者	28_21a
138	왕소군(王昭君)	美女	08_5a, 19_48b
		비운의 여인	18_79b, 20_20b
139	왕양(王梁)	名將	17_2b
140	왕자진(王子晉)	美男	02_4b, 23_37a
141	왕희지(王羲之)	文人	
142	요입금	賢君	02_39b, 04_5b, 08_31a, 08_43a, 16_66b, 17_54a, 18_1a, 22_7a, 22_34b, 22_35a, 24_43b, 24_53b, 26_8b, 27_35a
		孝子	04_6b, 09_19b
143	용봉(龍逢)	忠臣 忠諫	04_23a, 07_4a, 27_34a
144	원양(原壤)	不遜	24_47a
145	원천장(袁天綱)	神明	06_32a, 06_32a, 17_70b, 18_50b, 22_43a
146	우미인(虞美人)	美女	06_43a~43b
147	우입금	賢君	22_7a, 22_24a, 22_34b, 24_54a, 25_47a
148	위개(衛玠)	美男	01_6b~7a
149	위장	웅색함	02_5b
150	위지공	開國功臣	09_60a
151	위징(魏徵)	忠臣	10_28a, 12_48a
		智略家	14_39a

152	위혜왕(魏惠王)	昏君	02_55b, 26_3b
153	유방(劉邦)	創業之主	01_45a, 18_75a, 22_35a, 24_19b, 27_15a, 28_41b
		亂國之主	12_55b, 13_29a, 16_72b
		昏君	05_43b, 19_25b, 22_4b
		敗將	25_42b
		英雄	06_43a
154	유백아(兪伯牙)	知己知友	25_44a
155	유비	英雄	01_76a
		賢君	02_61a, 08_21b, 08_45a, 10_2b, 22_34a, 24_44b
		義兄弟	16_36b
		忍耐	25_44a
156	유옥빈(米善)	여성 문인	19_4b
157	유하혜(柳下惠)	公明正大	02_4b, 03_10b, 09_7a, 09_40a, 12_28a, 12_55b, 13_60a, 16_31b, 19_3b, 20_51b, 24_46a, 24_55b, 25_8b
158	육손(陸遜)	美男	04_53a, 05_13b,
		智略家	25_8b
159	은고종(殷高宗)	賢君	24_44b
160	이루(離婁)	才士	10_2b, 19_52b
161	이백(李白)	風流奇男	01_6b~7a, 14_37a, 16_45b, 18_42b, 19_7b, 19_57b, 20_56b, 23_37a
		文人(詩人)	05_14a, 11_3a, 13_21a, 13_58b, 16_44a, 16_70b, 18_53b, 27_23b, 28_61b
		飲酒	13_58a
162	이입보	奸臣	09_34b, 09_57b, 25_25b
163	이순풍(李淳風)	神明	06_32a, 17_70b, 18_50b, 22_43a,
164	이정(李靖)	功臣	18_55b, 24_6a
165	이윤(伊尹)	忠臣	04_43b, 17_17a, 17_56b, 22_7a
166	자공(子貢)	君子	24_4a
		辯士	25_8b, 26_49a
		훌륭한 제자	29_12b(6년상)
167	자로(子路)	君子	01_76b, 25_8b
		孝子	15_46b, 16_41a, 24_45a
168	자유(子游)	文學家	26_48b
169	자하(子夏)	孝子	02_40a
		文學家	26_48b
170	장간(蔣幹)	辯士	27_20a
171	장강(莊姜)	美女	02_1b, 03_19a, 08_5a, 20_65a, 22_2a, 24_45b, 27_26a
		婦德	27_15a, 20_56b,
172	장구령(張九齡)	剛直	13_45b, 14_35b, 17_57a, 18_18a, 26_41a, 26_43b

50 한국문학논총 제85집

173	장량(張良)	隱遁之士	07_34b, 27_35a
		才士	15_37a, 15_41b, 15_2b, 18_13b, 19_25b, 22_35a,
174	장비	英雄	01_76a
		義兄弟	16_36b
175	장우(張禹)	忠臣(머릿받음)	27_33b
176	장의(張儀)	謀士	22_35b
177	장주(莊周)	虛誕	22_36a, 26_17b
178	장창(臧倉)	讒言	24_47a
179	재여(宰予)	辯士	26_49a
180	적송자(赤松子)	道士	17_82b
		隱遁者	17_95b
181	제갈량	(忠臣)才士	02_4b, 06_33a, 06_34b, 08_45a, 10_2b, 12_55b, 14_39a, 14_44a, 16_6a, 20_44b, 20_45a, 22_8a, 24_44b, 25_48b, 25_52b, 27_20a, 28_58a
		隱遁志士	02_61a, 08_21b, 27_37a
		道德君子	03_10b
182	제녀(齊女)	烈女	23_15b
183	제영(緹榮)	孝女	10_46b
184	제위왕(齊威王)	賢君	02_55b
185	제환공(齊桓公)	創業之主	02_50a
		賢君	02_56b, 15_2b
186	조고(趙高)	背信者	08_22b
187	조광윤(趙匡胤)	創業之主	07_18a
188	조비연	美女	02_1b, 06_32b, 06_37a, 08_5a, 13_21a, 13_21b, 18_39b, 24_45b
189	조식(曹植)	文人	15_26b, 16_7a, 16_44a, 17_15a, 17_54a, 17_
190	조조(曹操)	奸臣	01_65a, 09_34b, 09_27b, 09_34b, 09_57b, 13_9b, 20_43b
		才士	02_35b, 04_41b, 22_24a
		敗將	09_32a, 10_41a
191	좌구명(左丘明)	學者	17_18a
192	주공	賢臣	14_35b, 18_14a, 21_32b, 22_7a
		忠臣	17_17a, 17_65a, 20_69b, 21_5a, 22_4b, 22_7a
193	주아부(周亞夫)	忠臣	13_48a, 14_19b, 27_17a,
		健壯	14_19b
		名將	28_40a
194	주유(周瑜)	英雄	04_41b, 25_8b
		美男	04_53a, 05_13b,
		才士	06_33a
		誤判之將	12_55b, 27_20a
195	주운(朱雲)	忠臣	07_4a

196	중옹(仲雍)	節義	16_59b
197	증삼(曾參)	孝子	01_24b~25a, 08_33b, 08_44b, 09_32b, 14_19b, 21_5a, 22_7a, 25_8b
		훌륭한 제자	02_14b, 16_60b
		君子	04_43b, 21_8a
		誣告	06_27a, 07_19b, 07_49a, 09_7a, 09_32b
198	증점(曾點)	良父	09_32b, 14_19b
199	직녀(織女)	烈女	17_77a, 26_25b
		逢別	26_43a
200	진도남(陳圖南)	隱遁者	17_86a
201	진문공(晉文公)	賢君	03_16b, 15_17b
202	진숙부	開國功臣	09_60a
		健壯	14_19b
203	진시황(秦始皇)	不孝子	08_22b
		短命	08_40a
		불로장생 욕망	26_36a
204	진평(陳平)	失節	04_14a,
		美男	24_46a, 26_39a, 28_17b
205	진효부(陳孝婦)	孝婦, 貞節	02_50a
206	진희(미상)	謙遜	24_48b
207	척희(戚姬)	美女	06_43a, 16_72b
		犠牲者	13_24a
208	초선	犠牲者	19_51a, 24_13a
209	초희왕(楚懷王)	昏君	24_33a
210	치우(蚩尤)	惡人	17_51a
211	탁문군(卓文君)	美女	17_15b
		良妻	20_17a
212	탕왕(湯王)	賢君	04_5b, 13_51b, 17_57a, 22_7a, 22_34b, 24_54a, 28_48b
213	태임	婦德	01_6a~6b, 03_19a, 03_26a, 13_39b, 14_13b, 14_16b, 15_3b, 17_28a, 17_42a, 22_2a, 24_42a, 24_45b, 24_48b, 27_15a, 27_26a, 27_53b, 28_64b, 13_37b, 17_65a
214	태사	婦德	01_6a~6b, 03_19a, 03_26a, 14_13b, 14_16b, 15_3b, 17_28a, 17_42a, 20_65a, 21_35b, 22_2a, 24_42a, 24_45b, 24_48b, 27_15a, 27_26a, 27_53b, 28_46a, 17_65a
215	태성(미상)	不肖者	28_21a
216	팽월(彭越)	버림받은 개국공신	27_33b, 28_46a
217	팽조(彭祖)	長壽	01_24b, 18_14b, 27_36b
218	편작(扁鵲)	名醫	14_23b, 14_48b, 18_27a, 20_8b

219	포사(褒姒)	惡女 美人	14_43b 19_24a
220	포숙아(鮑叔牙)	知己之友	02_48b, 05_14b, 11_3b, 16_13b, 19_76a, 20_56b, 21_16a, 21_58b, 24_43a, 25_44a
221	하갈(夏傑)	暴君	04_23a, 17_20a, 27_34a, 28_47b
222	하안(何晏)	美男	01_6b~7a
223	한광무제(漢光武帝)	創業之主	01_45a
		賢君	05_29b, 05_44a, 06_37b, 07_4a, 07_4a, 11_10a, 17_85b, 17_86a, 26_33a
224	한무제(漢武帝)	비정함	19_51a
		불로장생 욕망	26_36a
225	한소제(漢昭帝)	유약한 임금	14_35b
226	한신(韓信)	英雄	06_60a, 22_35a
		名將	25_52b, 28_40a
		버림받은 개국공신	28_46a
227	한유(韓愈)	文人	04_6b, 16_7a, 17_55a, 25_8b
		人才	20_24b
228	향우	霸王	02_56b, 20_28b, 22_34b, 22_35a,
		名將	06_43a, 15_2b, 18_75a, 27_36b
		昏君	25_42b
229	허유(許由)	節義 隱遁	16_58b, 27_34b
230	현원(軒轅)	神技	17_18a,
		道德君子	17_27a
231	형가(荊軻)	劍客	01_24b
232	홍불기(紅拂妓)	美女	18_55b, 24_6a
233	화타(華佗)	名醫	14_23b, 14_48b, 20_8b
234	황석공	知人知監	22_35a, 27_35a
235	황씨	良妻	20_45a
		醜女	20_42b
236	황향(黃香)	孝子	01_76b, 15_46b, 16_41a, 26_25b
237	후직(后稷)	賢臣	16_66b, 17_17a, 17_18a, 27_35a

위 표에서 미상으로 처리된 8건의 인물전고를 포함하여 총 237 건의 인물전고와 활용 양상을 정리하였다. 만귀비인 경우 다소 논란의 여지가 있어 표에는 정리하지 않았다. 만귀비는 이 작품의 배경으로 제시한 명나라 홍치연간 실제 인물이면서 동시에 그녀의 악인 캐릭터가 그대로 수용되었다. 따라서 만귀비의 경우 인물전고의 활용이라기보다는 등장

인물의 형태로 역사적 인물과 그녀와 관련된 사건의 수용으로 볼 수 있다. 난지(27_16a), 진희(24_48b), 신후경(17_15b), 나중(17_86a), 유옥빈·양여옥(19_4b), 태성·왕석(28_21a) 등의 인물전고는 필자의 부족함으로 그 실체를 찾지 못하였다. 따라서 미상으로 처리한 인물전고까지 전부 합할 경우 <효의>의 인물전고는 총 237건이 등장한다. 이 수치는 최소의 수치임을 밝힌다. 각주에서도 밝혔듯이 최선을 다하여 조사하였으나 미처 파악하지 못한 인물전고가 있을 수 있다. 결론적으로 <효의>의 인물전고 건수는 최소 237건으로 선정하였다. 이 표를 중심으로 가장 대표적인 몇 가지 특징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윤리적·도덕적 전범이 되는 인물 관련 전고들의 빈도수가 압도적이다.

가장 출현 빈도수가 많으면서 남성들의 전범이 되는 인물전고는 ‘요임금·순임금·문왕·공자·안자·맹자’ 등이다. 여성들의 부덕(婦德)과 명확하게 구분되는 요조숙녀와 현모양처의 특징을 제외하고 여성의 긍정적인 캐릭터를 ‘부덕(婦德)’으로 정리하였고, 그에 대한 전범으로는 태임·태사가 압도적이며 특이하게 이 작품에서는 목강(穆姜)이 일관된 캐릭터와 많은 빈도수를 나타내고 있다.

둘째, 효자(혹은 효도), 충신(혹은 충), 부덕(婦德) 관련 인물전고가 가장 많이 등장하고 있다.

특히 등장인물들의 대부분의 행위와 인물전고의 캐릭터들이 대부분 ‘효(孝)’의 실행으로 모아지고 있다. 이를 가장 잘 보여주는 인물전고도 바로 순임금 관련 전고들이다. 어질고 리더십이 있는 임금 관련 전고보다는 ‘효자(孝子)’ 관련 전고가 압도적이다. 이는 표면적으로는 ‘효의(孝義)·정충(貞忠)·예행(禮行)을 내세우면서도 결국은 모든 요소들이 효의 실행으로 귀결되는 주제의식과 잘 연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한 인물이 서로 다른 다양한 전고로 활용되고 있다.

다섯 가지 이상의 전고로 활용되는 인물은 두 명이 있다. 맹자인 경우

가장 일반적인 군자(君子)의 품모가 가장 많고, 도학자적 캐릭터가 다음을 잇고 있다. 특히 작품 전반부에서 주요 인물들의 긍정적인 모습을 강조하기 위하여 ‘대유(大儒)의 품모’와 처사(處士)적 면모로 활용하고 있으며, 부인의 비례(非禮)를 조금도 허용치 않는 엄한 남편의 모습도 잘 보여주고 있다. 유방 역시 맹자와 마찬가지로 다섯 가지의 양상으로 활용되고 있다. ‘창업지주(創業之主)’의 모습이 가장 많이 등장하고, 여후(呂后)와의 관련 양상과 함께 국가를 어지럽히는 혼암(昏暗)한 군주의 모습으로 등장하기도 한다. 물론 항우와의 경쟁에서 패하는 패장의 모습과 결국은 천하를 통일하는 영웅의 모습 등 다양한 캐릭터의 모습이 입체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가장 다양한 양상으로 활용되는 인물은 공자이다. 그는 우선 성인으로서의 군자적 품모의 빈도수가 가장 높다. 그리고 훌륭한 스승과 도학자로서의 품모가 잘 드러나고 벼슬길에 나갔을 때 어진 신하의 모습 역시 보여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냉정하고 강한 이미지를 보여주기도 한다.

공직 성인이사되 난정태우 소정묘를 버히시니 쇼성이 요녀를 다른 뒤
 서 죽일 줄 모르리잇고 마는 실인이 투기될 니기지 못흐야 칭을 보면
 일호 화괴 업스니 도시 강선의 빌미라(24_13b)

위의 예문은 부모를 비롯한 주변 인물들이 진창현에게 이기적이고 음란하며 욕망으로 가득차 가문과 자신에게 해를 입히는 단강선을 죽일 것을 종용하는 장면에서 등장하는 내용이다. 여기에 공자의 전고를 활용하고 있다. 소정묘(少正卯)는 춘추전국시대 악인의 전형으로 평가되는 노나라 대부이다. 그는 악인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특성을 갖고 있는데, 이러한 소정묘는 자신의 권력을 이용하여 국가를 혼란에 빠뜨리고, 이때 섭정(攝政)을 하고 있었던 공자가 과감하게 소정묘를 주살하였다. 이는 군자 혹은 도학자의 이미지와는 달리 냉정하면서도 분명한 정치가의 이미지를 만들어 내고 있다. 이 공자의 전고를 통하여 진창현 역시 집안을

다스림에 있어 냉정하고 과감하며 분명한 행동을 유도하는 것이다. 이러한 진창현과 단강선의 관계에서 의외의 전고가 등장하는데 바로 관우이다. “관공이 월하의 참초선흙과 한무의 구익부인 죽이믈 효측흐리니 가히 조심하라.(19_51a)”라고 하여 관우가 여포의 첩이었던 초선을 과감하게 처단했다고 전해지는 전고를 활용하고 있다. 이는 ‘24_13a’와 ‘28_3a’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한다.

3. 역사적 인물과 사건의 활용

<효의>의 역사적 사건과 인물전고가 결합된 가자 대표적인 사례는 만귀비, 당태종과 울지공 관련 인물전고이다. 만귀비의 수용은 악인 여성의 형상화로 이어진다. 이를 위해서 역사적 사건 혹은 장면의 수용보다는 주로 역사적 인물을 활용하고 있다. 즉 만귀비는 인물전고의 수용 양상과 함께 이 작품의 등장인물에 해당하기 때문에 만귀비의 활용은 순수한 인물전고 활용으로 보는 데는 다소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이 작품은 시대배경을 제외하고는 인물과 사건 등 작품 전체가 허구인 순수 창작 국문 대장편소설이다. 그런데 작품의 배경으로 제시된 시대가 바로 명나라 성화와 홍치 연간이다. 이는 명나라 현종~효종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 시대를 대표하는 문제적 여성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만귀비다. 현종이 그녀를 황후로 책봉하려고 할 정도로 총애를 받았으나, 후궁들을 독살하고, 낙태를 시키기도 하였으며, 매질을 가하기도 하는 등의 악행을 일삼는 인물이다. <효의>에서 전반부의 시대적 배경이 성화 연간이지만, 만귀비를 둘러싼 역사적 사건이 활용되거나 그녀와 관련된 인물들이 캐릭터로 등장하지는 않는다. 그런데 만귀비는 이 작품의 앞 부분에서 가장 중심 인물이면서 악인 여성인 안부인과 함께 황실의 유일한 악인으로 등장한다는 점과 황제의 총

애를 이용하여 악행을 저지른다는 점 등을 통하여 본다면 <효의>의 등장인물인 ‘만귀비’는 역사적 실체로서의 인물인 ‘만귀비’의 특징을 수용하여 형상화된 인물로 볼 수 있다.

황실에서는 천자가 만념의 딸을 후비로 맞이하여 총애하고, 만념의 아들인 만금오 역시 황실로 들어오게 되자, 권세가 만씨에게 돌아가게 되고 만념은 ‘국구’로 칭송 받기에 이른다. 이러한 정세를 파악한 안부인은 만후비를 극진히 모시며 아부한다. 만귀비는 안부인과 결탁하여 안부인의 악행을 돕는다. 황제의 총애를 이용하여 황후의 자리를 노리던 만귀비는 안부인에 신도법사를 소개받는다. 만귀비는 신도법사의 도움을 받아 황제를 환각에 빠뜨려 조정하면서 충신들을 제거하기 시작한다. 그러나 여기에 만족하지 못한 만귀비는 신도법사의 도술을 이용하여 황제의 위를 탈코자 하여 신도법사, 만념, 요정 등과 함께 직접 권력을 승계할 계략을 세운다. 그러나 꿈에서 창업지주들과 석부인의 가르침으로 환각상태에서 벗어난 황제는 만귀비의 모든 계략을 알게 되고 안부인과 의 관련 사실을 알게 된다. 결국 안부인과 만귀비의 모든 죄상이 들어나고 만귀비는 사약을 받게 된다.

위의 내용은 <효의>에 등장하는 만귀비 관련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역사적 실체로서의 만귀비의 악행처럼 후궁들을 낙태시키거나, 독살시키거나 혹은 태장을 가하는 행위들은 수용되지 않는다. 즉, 역사적으로 황실 내에서 만귀비가 행한 모든 악행들은 생략된 체 성화황제 즉 현종을 미혹시켜 권력을 농간하는 내용과 이 작품의 대표적인 악인인 안부인과 연결되어 안부인의 악행을 돕는 내용으로 전개된다. 특히 허구화된 신도법사와 연결되면서 보다 체계적인 계획과 실천으로 악행을 저지른다. 그러나 역사 속의 만귀비와는 달리¹²⁾ 악행이 밝혀지자 결국 사약을 받게 된다.

12) 역사 속에서는 황실에서 독살 등을 비롯하여 많은 악행을 저지르지만, 현종의 절대적 총애로 죽음을 면한다. 결국 1487년 60세의 나이로 죽게 된다.

결국 <효의>의 작가는 만귀비의 모든 악행은 바로 ‘황명대기략’에 있으므로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다고 정리하고, 신도법사인 경우는 능지처참하여 시신을 팔 주에 회시하게 하면서 “원컨대 성주는 차사로써 책의 기록지 마르사 후인의 허탄이 여기물 취치 마르소서 상이 율히 너기사이의 사관으로 하여금 차사를 기록지 아니시다”¹³⁾라고 언급하면서 마무리 짓는다. 이처럼 만귀비의 경우 <황명기략>을 언급하고, 신도법사의 일은 사관으로 하여금 역사의 기록에 올리지 않게 하였다는 내용으로 정리하면서 역사의 수용을 직접 언급하고 있다.

두 번째로 역사적 실체와 인물전고의 결합 양상은 당태종과 울지경덕의 전고 활용이다. 그 활용 양상은 갈등관계에서 상대방을 포용하고 화해해야 함을 논하는 자리에서 당태종과 울지공의 관계를 활용한다.

18년 동안 안부인의 악행이 끝나고 회과하여 가정이 정리되자 진연중¹⁴⁾은 진창종에게 양소저(월희)를 어떻게 할 지 묻는다. 이에 창종은 친정의 의견을 따라 시택을 떠난 양소저(월희)를 버리겠다고 하면서 연중에게 다시는 양소저(월희)에 대한 언급을 자제해 줄 것을 부탁한다.¹⁵⁾ 이 장면에서 연중이 당태종과 울지공의 예를 제시하자, 창종이 반론하게 된다.

금번지스는 위국하야 직언을 흐미니 석의 울지공이 당 진왕으로 더브러
식살흘 썩 만일 진숙보의 구흐미 아니러들 위티흐미 반듯홀 거시로
덕 못츨넌 세민이 원을 품지 아니코 곡경을 어더 신하를 삼아 당실을
보좌하여시니 엇지 원을 기리 미즈리오 상이 이연 덕왕 울지공이 비록
처엄 그러흐나 당태종이 관용신의게 박여실제 경덕이 봉구나혜로 구하

13) 필자의 시각으로 현대어로 고쳤음.

14) 진창종의 삼촌. 진창종의 부친인 진위중의 동생. 우둔한 진위중을 대신하여 집안의 실질적인 가장 역할을 수행한다.

15) 양소저는 안부인의 꺾박과 진창종의 무관심으로 인하여 시택인 진부를 떠나 친정으로 가 버린 상태다. 그러나 진부의 모든 사람은 양소저가 친정으로 가게 된 것은 전적으로 안부인의 악행 때문임을 인정한다.

미 아니런들 당국 사직이 뉘게로 갈동 알니오 연이나 고금이력으로 고진
왕은 즈식의 당흔 배오 부형그 년비치 아녀시니 방금 유즈의 만난 바와
다르니(09_60a)

당고조 이연이 태원 유수로 있을 때 이 지역에서 반란을 일으킨 유무주(劉武周)의 토벌에 계속 실패한다. 이에 당태종에게 토벌을 명하게 되고 그는 결국 유무주의 세력을 토벌하게 되고 부장 울지공 등을 투항하게 하여 자신의 휘하로 받아들인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투항했던 세력 중에 심상(尋相)과 그를 따르는 무리들이 반란을 일으키기자 울지공 역시 옥에 갇히게 된다. 이에 당태종의 부하들은 용장인 울지공 등을 제거해야 한다고 하지만 당태종은 끝까지 울지공을 믿고 옥에서 풀어주며 오히려 상을 내린다. 이에 울지공은 당태종에게 충성을 맹세한다. 따라서 위의 예문은 이러한 역사적 실체와 <효의>의 서사가 만난 것이다. 그러므로 이 전고에서 당태종의 현군(賢君)으로서의 품모와 충신이자 개국공신으로서의 울지공의 품모가 잘 드러난다.

연중은 창종에게 이러한 당태종의 태도를 본받아 양소저에 대한 오해를 풀고 용서해 줄 경우 양소저 역시 창종을 받아들일 것이며 이전보다 더 부부의 관계 및 가족 관계 전체가 좋아질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연중의 주장에 창종은 역시 같은 예를 들어 상황이 전혀 다를 것을 강조한다. 창종이 생각할 때 당태종이 울지공을 전적을 신뢰하기 시작한 것은 왕세충의 부하인 단웅신(單雄信)에게 쫓겨 위기에 처했을 때 울지공이 단웅신을 죽이고 세민을 구해주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당태종과 울지공과의 관계와 현재 자신과 양소저와의 관계는 층위가 다른 것임을 주장한다. 특히 양소저가 자신에게만 힘들게 한 것이 아니라 진부 식구 전체를 무시하고 가문에 누를 끼쳤음을 강조하고 있다. 주변에서는 당태종과 울지공의 관계와 관련된 전고를 활용하여 진창종을 설득하지만, 진창종은 동일한 전고를 활용하여 자신과 양소저와의 갈등 층위를 더욱 분명히 드러나게 하는 서사적 기능을 하고 있다.

4. 문헌 내용의 활용

<효의>에서는 다양한 중국의 문헌과 문학작품을 필요에 따라 활용하고 있다. 단순히 ‘조강지처는 불하당이오, 빈천지교는 불가망이라’, ‘맹모삼천지교’ 등과 같은 표현은 이미 상투화 되고 일반화 된 표현이므로 문헌의 직접적인 활용으로 보기 힘들다. 이처럼 이미 관용화 된 표현 이외에도 계획적이고 구체적으로 특정 문헌을 수용한 양상이 곳곳에 보인다. 가장 빈번하게 등장하는 문헌이 『시경』, 『논어』, 『열녀전』 등이며, 문학작품 중에 <적벽부>와 명대의 희곡 <홍불기(紅拂記)>이다. 특히 <적벽부>는 앞 부분 1/4 정도와 끝 부분 1/5 정도 그리고 중간에 4구 정도를 생략하였을 뿐 거의 그대로 옮겨 놓았다.¹⁶⁾ 그러나 인물전고와 직접적인 관련성을 맺는 문헌은 『열녀전』과 <홍불기>가 가장 대표적이다.

첫째, 『열녀전』인 경우 목강(穆姜)이라는 인물의 전고를 통하여 가장 이상적인 계모형을 보여주고 있다. 고전소설에서 전처의 자식과 후처 사이에 나타나는 갈등은 항상 작품의 중심 내용을 차지하고 있다. 이 작품 역시 그러하며, 주로 전반 1/3 정도가 이에 해당한다. 전처의 자식은 주인공인 진창중이며, 후처는 안부인이다. <효의>의 9권까지 절대 악인으로 등장하며, 모든 갈등에서 가해자의 역할을 한다. 따라서 안부인을 여희(驪姬)에 비유하기도 하고, 개과하여 ‘목강’처럼 되기를 바라기도 하며, 가장 이상적인 여성의 전범으로 ‘목강’을 제시하기도 한다.

석죽의 녀휘 묘왕을 흐며 녀희(驪姬) 신심을 죽이른 패국지부와 망국 지슈니 좃히 오문의 비홀 배 아니어니와(01_63a) / 안시 비록 여희의 사 오나오미 잇고 내 설스 현공 갓들지라도 빅쥬의 사름이 돌히 될 니 업 거늘(05_10b) / 목강(穆姜)의 인즈흐미 업슨들 상모-순의 계모-의 과악

16) <효의>에서 <적벽부>는 등장인물이 처한 환경과 정서를 대변하면서 주요 인물들의 만남을 이루는 매개체로서의 서사적 역할을 하고 있다.

이 이시리잇가(01_18b) / 창문이 일편 효위 돈독홀지언뎡 즈피 형을 육
살지심 품어시물 아지 못호고 시랑은 알기를 더욱 성여로써 밀위여 목
강(穆姜)의 어질미 잇는가(01_25a) / 빌건디 즈위는 목강(穆姜)의 인즈
호를 배프샤 형을 히으도곤 더 민지홀지호시고 가지록 슈히도덕호샤 하
놀이 주시는 복을 안향호쇼셔(01_43a) / 목강(穆姜)은 엇던 녀지오 태
는 엇던 부인이신디 츠마 핑치 못홀 일노 핑호시니(01_54a) / 첩의 무상
호미 능히 목강(穆姜)의 인즈호미 업슨 고로 의심이 이에 맞츠시니 슈원
슈한이리잇고 연이나 천인이 타비호고 만인이 즐육홀지라도 첩의 호 미
음이 창중 스랑호는 뜻은 신명이 슬피실지라(01_64a) / 못츰니 중요로운
거슨 어미만 호 니 업고 즈고로 목강(穆姜)의 인즈호미 잇다 호나 너외
징청호고 표리 명털호를 어이 미드리잇가(02_26a) / 목강(穆姜)의 인즈
호를 효측지 못호신들 스빅은 니르도 말고 시녀 가동인들 츠마 저러&
툷 혹형을 더우리잇가(03_30a~30b) / 빌건디 여츰스틀 그치샤 목강(穆
姜)의 성덕을 스싱호샤 불근인정을 제연이 빙석호시면 금석슈시나 우음
을 먹으리이다.(03_40b) / 부인이 츠일은 괴식을 빌녀 냥즈를 머뜨러 오
리 말호미 넷날 목강(穆姜)은 비록 어지다 호나 츠일 안&부인의 동셔
스랑호는 괴식의 더오지 못홀지라(04_34b~35a) / 창중이 만일 첩으로
써 디접호 디 첩이 쏘호 목강(穆姜)의 칩를 잡고져 아니호리잇가
(05_25b) / 신의 누 호 소회를 알외오리이다 신피 비록 목강(穆姜)의
인즈호미 업스나 신이 만일 민즈의 효행이 이실진디 스식 이 지경의 니
르지 아니호야스오런 마는(09_21b) / 창중이 무모 고으로 가공호니 즈
고로 목강(穆姜) 밧 어진 계피 이시물듯지 못호여시니 공이 만일 슬피기
를 즈상이 호고(09_27b) / 오직 십년을 그음호야 즈위 회심호샤 목강(穆
姜)의 성덕을 효측지 아니신 전 일싱을 철환턴하호를 감심호고(09_48a)
/ 소렬의 화룡을 드흠과 주문의 녀상을 접흠 곳트니 허물며 가성의 득
지호며 안시의 지성교이호미 목강(穆姜)의 지나 근 호 체 호미(10_2b~
3a) / 즈고로 목강(穆姜)은 호나히오 민즈의 치위는 만호니(18_31b)¹⁷⁾

<효의> 18권까지 ‘목강(穆姜)’이라는 인물이 나오는 부분을 모두 정리
한 것이다. 특히 맨 처음에 제시된 두 가지 예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여성
에 대한 비유와 대표적인 예를 『열녀전』에서 취했음을 알 수 있다. 진나

17) 한자는 필자가 삽입한 것임.

라 헌공(獻公)은 부인인 제강(齊姜)에게서 목희(穆姬)와 태자 신생(申生)을 얻었다. 그러나 제강이 죽자 자신이 총애하는 여희(驪姬)를 부인으로 삼았지만 여희는 결국 헌공을 혼란에 빠뜨리고 태자인 신생을 독살하게 된다. 따라서 악독한 계모의 표상이기도 하다.¹⁸⁾ <효의>의 저자는 18년 동안 악행을 저지르는 악한 계모인 안부인의 원형을 ‘여희’에서 찾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비해 세 번째 예문부터는 가장 이상적인 여성으로 ‘목강’이 등장한다. 대부분 목강이 나올 때는 연어적(連語的)으로 ‘인자하다’가 나타나며, ‘어질다’ 혹은 ‘성덕’ 등의 매우 긍정적이며 덕이 높다는 의미의 단어가 이어진다. 이처럼 여희와 동일시한 안부인에 비하여 목강은 어질고 인자하며 덕이 높은 여성으로 형상화 되고 있다. 특히 마지막 예에서 볼 수 있듯이 목강을 가장 어진 계모의 표상으로 설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목강은 『춘추좌전』에 등장하는 예를 들어 ‘미망인’의 가장 대표적인 형상으로 인식되는 여성이다. 오히려 가장 이상적인 계모의 표상은 『열녀전』 『절의전(節義傳)], <제의계모(齊義繼母)>에 나오는 의로운 계모다. 그런데 그녀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다. 『열녀전』에서 ‘목강’이라는 인물이 주인공으로 이루어진 작품은 『열폐전』에 나오는 <노선목강(魯宣繆姜)>의 주인공인 ‘목강(繆姜)’이다. 물론 ‘繆’은 ‘穆’자와 동자(同字)로 쓰이므로 ‘繆姜’을 ‘穆姜’으로 읽거나 쓸 수도 있다. 그러나 결정적인 것은 <노선목강>에 나오는 목강은 선인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노선목강>에서 유향 역시 목강을 지혜롭고 총명하지만 음란하다고 평가한다.

따라서 <제의계모(齊義繼母)>에서 등장하는 의로운 계모와 <노선목강(魯宣繆姜)>에 등장하는 목강을 결합한 이미지로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가장 완벽한 여성인 <효의>의 ‘목강’이 만들어진 것이다.

둘째, 중국 명대 희곡인 <홍불기>의 이야기를 요약하여 수용하고 있

18) 유향(劉向), 『열녀전(列女傳)], 『擘髮傳』, <진현여희(晉獻驪姬)>.

다.

지금 허신흔 곳이 업고 쏘흔 용부 속즈의게는 가기를 원치 아냐 어진
 군즈를 만난 즉 축실 소임이라도 감심코져 흐느이다 공지 함쇼 왈 흥불
 기의 니위공 조츠물 효측고져 흐느냐 금세의 군즈 만나기 쉽지 아닐 거
 시니 적모 풍치 날만 흐 호결의 쇼성이 되어 타일 & 금누 화당의 부귀
 를 누리미 엇더흐노(18_55b~56a)

위의 예문은 등장인물 중에 진창현과 단강선이라는 여성 간에 나누는 대화의 내용이다. 즉, 진창현이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단강선은 그를 따를 것이라고 맹세하는 장면이기도 하다. 단강선은 이러한 자신의 속마음을 <흥불기>의 정서와 행위에 결합시키고 있다. 이 예문에서 알 수 있듯이 <흥불기>의 화소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활용은 진창현과 단강선 그리고 정소저와의 관계를 정리하는 지점에서 다시 한 번 더 활용된다.¹⁹⁾ 이처럼 <효의>의 등장인물인 진창현과 단강선의 관계를 단강선의 시선에서 문학작품인 <흥불기>의 두 주인공 이정과 흥불의 관계로 비유하여 서사를 이끌어어나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흥불기>는 중국의 대표적인 소설인 <규염객전>을 희곡화 한 작품이다. 대부분 사서삼경이나 역사자료 등에 등장하는 전고와 그에 해당하는 인물을 활용하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비해 상대적으로 비교적 늦게(17세기 전반) 창작된 희곡인 <흥불기>과 같은 문학작품에 등장하는 인물과 그 특징을 수용하는 것은 주목해 볼만 하다. 이는 등장인물의 정서를 간접적으로 제시해 주는 <적벽부>의 활용과는 달리 인물전고가 문학작품과 결합되어 나타나는 현상을 볼 수 있다.

19) 범여의 서시는 엇더하던지 보지 못흐였고 흥즈운의 니위공 조츠문 후세 미답이나 친견치 못흐엇거니와 츠녀는 삼빅 말 진쥬로써 밧고지 못홀 식이 엇더라(24_6a)

5. 결론

앞에서 논의한 내용과 그 의미를 정리하는 것으로 결론을 대신하고자 한다.

우선 29책본 <효의>를 분석하여 총 237건의 전고를 표제어, 활용 양상, 위치의 항목대로 정리하였다. 그 결과 첫째, 윤리적·도덕적 전범이 되는 인물 관련 전고의 출현 빈도수가 압도적임을 확인하였다. 둘째, 효자·충신·부덕(婦德) 관련 인물전고가 가장 많이 등장하는데, 이 전고들이 효자 혹은 효의 실현으로 수렴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셋째, 한 인물이 다양한 양상의 전고로 활용되었는데 맹자·유방이 다섯 가지 양상으로 활용되었고, 공자가 여섯 가지 활용양상을 보여 가장 다양한 활용도를 보였다.

이어 역사적 실체인 만귀비 관련 전고들이 여성 악인 형상화에 활용되었고, 당태종과 울지공의 관계를 보여주는 전고를 활용하여 인물간 갈등 해결의 양상과 의미를 보여주기도 하였다. 특히 『열녀전』에 실려 있는 <제의계모>와 <노선목강>에 등장하는 목강의 전고를 결합하여 가장 전범이 되는 여성 캐릭터의 이미지를 만들었고, <홍불기>라는 문학작품으로 만들어진 전고를 활용하여 등장인물들의 관계와 관계의 정리양상을 그려내기도 하였다.

이러한 <효의>의 인물전고 활용 양상을 통하여 ‘효의(孝義)·정충(貞忠)·예행(禮行)을 내세우면서도 결국은 모든 요소들이 효의 실행으로 귀결되는 주제의식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었으며, 가장 전범이 되는 인물들 조차도 다양하고 입체적으로 수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열녀전』과 <홍불기>의 내용과 전고를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창의적인 결합을 통해 <효의>만의 특징을 만들어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참고문헌

- 강문중, 「〈孝義貞忠禮行錄〉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0.
- 김기동, 『한국고전소설연구』, 교학사, 1981.
- 김문희, 「장편가문소설의 전고와 독서 역학적 연구」, 『한국고전연구』 21, 한국고전연구학회, 2010, 201~232쪽.
- 모리스 꾸랑 원저, 李姬載 翻譯, 『韓國書誌』, 一潮閣, 1994.
- 서경희, 「소약탄 고사의 국내 수용 양상과 <소약탄직금회문록>의 이본 전승 연구」, 『온지논총』 20, 온지학회, 2008, 109~150쪽.
- 차충환, 「〈효의정충예행록〉 연구」, 『古小說研究』 제22집, 한국고소설학회, 2006, 239~276쪽.
- 최수현, 「〈유씨삼대록〉의 전고 활용 특징과 그 기능」, 『고소설연구』 38, 한국고소설학회, 2014, 261~295쪽.
- 최수현, 「국문장편소설의 전고(典故) 운용 전략과 향유층의 독서문화 연구」, 『한국고전연구』 36, 한국고전연구학회, 2017, 147~183쪽.

<Abstract>

A Study on utilization pattern of a idiom
originated in an ancient event in
<Hyoeluijungchoungyaehaengrok>

Kang, Moon-Jong*

A total of 237 idioms originated in an ancient event were selected through the analysis of <Hyoeluijungchoungyaehaengrok>. And the idioms originated in an ancient event are organized into heading title, utilization patterns, location. As a result, First, the frequency of appearance of figures related to ethical and moral examples was the highest. Second, there are many stories related to filial piety, loyalty, and passionate women about the authentic precedents. by the way, The idioms originated in an ancient event were gathered as filial piety or filial piety. Third, a character was used as the authentic precedent in various aspects. Mèngzǐ and Liú Bāng was used in five ways. kǒngzǐ was used in six ways. kǒngzǐ showed the most diverse utilization. Relating to Man Guifei as a historical entity the idioms originated in an ancient was used as the image of a female villain. Dang the idioms originated in an ancient related to Tae-jong and Uljigong showed the aspect and meaning of conflict resolution among the characters. Especially, There are two stories related to Mokkaeng in 『Yeolnyeojeon』. Combining the authentic precedent of Mokkaeng together, it created the image of the female character that is the most

* Jeju National University.

exemplary. The idioms originated in an ancient Made from a literary work called <Hong Bul-gi> expresses the aspect of the relationship of the character. Through this aspect of utilization, Confucian ethics were put forward. In the end, everything was put together as a practice of filial piety. And even the most exemplary characters embraced the idioms originated in an ancient in various and three dimensions. Especially, did not accept the 『Yeolnyeojeon』 and <Hong Bul-gi> as it was. Through creative combination, the <Hyoeluijungchoungyaehaengrok>'s unique features were created.

Key Words : Hyoeuijungchoungyaehaengrok, the idioms originated in an ancient, Yeolnyeojeon, Hong Bul-gi, Mokkaeng

■ 논문접수 : 2020년 7월 20일
■ 심사완료 : 2020년 8월 14일
■ 게재 확정 : 2020년 8월 24일